

科學史研究所와 博物館건설절실



朴 星 來
(韓國外國大교수)

한국의 과학기술진흥을 위해서는 그야말로 요즘 유행하는 “新思考”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과학기술을 말하면서 언제나 너무나 좁은 의미에만 安住해 왔다. 科學이란 자연에 대한 지식체계로만 알아왔고, 技術이란 자연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재주만으로만 알아 온 것이다. 그러나 이런 단편적 인식만으로는 오늘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과학기술의 문제에 근본적으로 접근할 수 없으며 과학기술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다.

따라서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과학기술에 대한 “新思考” 즉, 과학기술을 보는 새로운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 새로운 관점의 핵심은 과학기술이란 결코 과학기술 독자적인 존재일 수는 없다는 인식을 철저히 해야겠다는 것을 뜻한다. 과학기술이란 우리 문화의 한 부분이며, 그 문화적 수준에 따라

과학기술수준도 결정될 수 밖에 없다. 정치 경제에서 예술까지를 포괄하는 일체의 것을 文化라 부를 때 과학기술은 바로 그 文化의 총체적 구조 속에 속하는 한 부분임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런 인식의 부족 때문에 우리의 정부예산을 보면 과학기술 그 자체의 연구개발에만 투자가 계속되고 있을 뿐, 과학문화의 창달을 위한 예산은 거의 없다. 이런 여건 속에서 한국에는 적지 않은 연구기관이 나라 돈으로 만들어져 지탱되고 있건만 ‘科學史研究所’나 科學博物館은 하나도 없다. 과학기술이란 인간의 다른 문화활동과는 달리 유일하게 현재만 있고 과거는 없는 것처럼 인식되고 있다. 과거가 없는 문화활동에 밝은 미래가 있으리라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아닐 수 없다.

우리가 오늘 개발해 가고 있는 과학기술은 서양의 그것을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진행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어느 정도 자립할 수 있기는 충분한 수준의 과학기술을 가지게 된 오늘 우리의 당면과제는 이렇게 수입해 온 서양의 과학기술을 어떻게 우리 것으로 소화하여 우리 문화의 한 부분을 만드느냐에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역사속의 과학기술전통을 연구하고 오늘의 과학기술을 그것과 접목시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급히 서양 것을 받아들이다가 자칫 잊고 지내 온 과거의 우리 과학기술전통을 가능하면 되살리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예를들면 우리는 서양 수학을 급히 받아들이기에 바빠 우리 선조들에게 이미 “구고법”(句股法)이란 용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잊고 “피타고라스의 정리”란 용어를 수입해 써 왔다. 이처럼 잊혀진 과학용어들을 되찾고, 잃었던 과학기술의 전통을 재발굴하여 교육하고, 없어진 과학기술유물을 복원하고 전시함으로써, 우리는 우리 과학기술을 잃어버렸던 시간이란 차원을 되찾아야 한다.

한국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한 新思考란 다름 아닌 잃었던 시간을 되찾는 일이다.